

한우

한우자조금, 국제비즈니스대상(IBA) 수상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서정훈 홍보마케팅팀장(사진중앙)과 지혜선 대리(사진왼쪽)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강성기)는 10월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1회 국제비즈니스대상(IBA, International Business Awards) 시상식에서 ‘올해의 최고경영인-비영리기구/정부’와 ‘올해의 마케팅캠페인’ 2개 부문의 금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이번 IBA 수상은 그동안 펼쳐왔던 ‘한우 소비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출품해 한우 직거래장터와 한우114 할인몰 개설 등 유통마진을 줄여 소비자들에게 한우소비 촉진 및 친근한 한우의 이미지를 주기 위한 한우자조금의 노력들이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특히, 이날 한우자조금은 전 세계의 외국인들이 참가하는 IBA 시상식 자리에서

한우 인형탈과 함께 한우육포 시식 이벤트를 진행해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에 적극 앞장서기도 했다.

IBA는 전세계 기업과 조직이 한 해 동안 펼친 경영, 기업조직, 상품, 커뮤니케이션, 홍보, 마케팅 등 15개 부문에 걸쳐서 평가하는 국제대회로 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매년 세계를 순회하며 시상식을 갖고 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홍보마케팅부 서정훈 팀장은 “한우 홍보를 위해 준비했던 한우육포가 모자랄 정도로 한우 육포를 맛본 외국인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면서 “이를 계기로 한우의 세계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더 다양한 마케팅PR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돈

한돈자조금, 10월 1일 '한돈데이' 제정



한돈농가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규)가 10월 1일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국산 돼지고기 한돈나눔축제인 제1회 한돈데이를 개최했다.

매년 소외계층을 위해 돼지고기를 지원하는 한돈농가는 1년 중 먹거리가 가장 풍성한 가을, 한돈농가의 나눔

활동을 소비자와 함께하기 위해 10월의 첫 날이자 숫자배열이 돼지코 모양(1001)을 연상시키는 10월 1일을 한돈데일로 제정했다.

제1회 한돈데이 선포식에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이병규 위원장과 한돈자조금이 나눔의 인연을 맺고 있는 시각장애인,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참석해 서울대공원을 찾은 시민과 함께 한돈데이 제정을 축하했다.

선포식에 이어 진행된 나눔행사에서는 1001명의 참가자가 각자 돈가스를 2장씩 만들어 1장을 결식아동에게 기부하는 '한돈愛돈가스' 만들기 이벤트와 서울대공원에서 힐링하며 나눔의 행복을 더하는 '나눔 한발 한발 걷기' 행사가 진행됐다. '한돈愛돈가스' 만들기 행사에는 한돈홍보대사인 탤런트 이서진이 참여해 한돈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외에도 인디레이블 콘서트, 대한민국 대표 한돈요리 베스트3 만들기, 돼지박사와 함께하는 돼지체험행사, 뽀로로 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펼쳐졌다.

한편 이날 한돈자조금은 기무사령부에 한돈 4,000인분을 후원했다. 한돈자조금은 한돈데이와 같은 날인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나라를 지키는 국군장병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장병들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매년 한돈데이에 맞춰 군부대에 한돈을 후원할 예정이다.

낙농 육우

우유자조금, '청소년 우리 우유사랑 캠페인' 홍보대사로 블락비 위촉



인기그룹 블락비가 국산우유 급식 권장을 위한 '청소년 우리 우유사랑 캠페인' 홍보대사로 임명되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손정렬)가 주최하는 '청소년 우리 우유사랑 캠페인'은 10월 14일 오후 2시에 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등학교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국산우유 급식 권장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개그맨 윤성호가 사회를 맡은 이날 행사에는 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등학교 전교생 약 700명이 참여하였으며 우유 OX퀴즈로 블락비와 함께 활동할 청소년 홍보대사 30명을 선발하는 우유 퀴즈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다.

보이그룹 블락비는 국산우유 급식장려를 위한 '청소년 우리 우유사랑 캠페인' 행사에 참여하여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손정렬 위원장으로부터 우유홍보대사로 위촉을 받았으며, 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등학교에서 청소년 우유 홍보대사로 선발된 30명의 학생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축하공연과 함께 우유 건배식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행사에 자리한 손정렬 위원장은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국산 우유를 많이 마셔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청소년기를 보냈으면 좋겠다, 우리 낙농가 또한 품질 좋은 우유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산 우유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우리 우유사랑 캠페인'에서 선발된 청소년 홍보대사 30명과 블락비는 앞으로 국산 우유 마시기를 권장하며,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라이브뉴스 광동신 기자 [2014. 10. 14]

양계

전국양계인대회 이모저모



대한양계협회가 주관하고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와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최한 2014 전국양계인 대회가 지난 9월 25~26일 이틀간 강원도 평창 한화리조트 휘닉스파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양계 경쟁력 확보! 양계인의 자주권 회복!’을 주제로 한 이번 대회에는 지난 9월 24일 전남 영암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축이 발생함에 따라 전남 지역 양계농가들은 불참한 가운데 전국 양계인 1200여 명이 참석해 화합을 다졌다.

첫날 개회식에서 양계인들은 수입축산물의 위협, 고병원성 AI에 따른 질병피해, 생산과잉,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참담한 현실임에 따라 당면현안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사육주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양계인들은 특히 사육주권 회복을 위한 단합, 차별화된 친환경 양계산물 생산, 유통구조 개선, 적정사육수수 준수, 철저한 차단방역, 의무자조금 거출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주요 행사는 첫날 각 분과별 토론회를 시작으로 비전 선포식, 2014년 양계정책방향 설명 및 경쟁력 강화방안 및 AI 발생동향·방역체계 개선방안 강연, 양계인의 밤 행사 등이 진행됐다.

또한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미뤄졌던 대한양계협회 제19대 이준동 회장의 이임식과 제20대 오세을 회장의 취임식도 치러졌다.

둘째 날에는 양계산물 시식행사와 함께 이번 대회에서 제시된 현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토론회가 이어졌다.

한편 올해로 2회를 맞는 양계대상(고려비엔피 후원)은 제13·14·16·17대 대한양계협회장으로 역임하면서 양계산업 발전에 기여한 최준구 전 회장이 수상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에는 신현철 신전농장 대표, 김대영 태영종계장 대표, 남기훈 청암농장 대표가 선정돼 상패와 부상을 수여받았다.

개회식에서 오세을 대한양계협회장은 “산란계 과잉입주로 인해 계란가격 전망이 어둡고, 육계 시세도 생산비 이하를 형성하고 있는 등 양계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수급조절과 농가들의 과잉입식 자제가 필요하다”면서 “양계협회는 이 같은 현안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양계인들의 이익과 산업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와 이창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김용철 농협중앙회 상무는 축사를 통해 양계산업 발전을 기원했다.

축산경제신문 박정완 기자 [2014. 10. 06]

양계

양계사진 공모전 대상 ‘자유로운 영혼들’ 토종닭협 · 닭고기자조금, 36작품 선정해 홍보 활용



한국토종닭협회가 주관하고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제4회 양계사진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27일까지 접수된 총 66명의 167개 작품을 심사한 결과 김재은씨의 ‘자유로운 영혼들’〈사진〉이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한국토종닭협회 측은 “이번 공모전은 대상 1작, 우수상 2작, 장려상 3작, 입선 30작 총 36작품이 선정되었으며, 친근한 양계사진을 일반인에

게 소개함으로써 국내 양계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3저1고(저콜레스테롤, 저칼로리, 저지방, 고단백) 건강식품인 국내산 닭고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 확대를 위해 개최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공모전 대상 및 모든 입상작은 닭고기 산업 발전을 위해 책자와 달력으로 만들어 널리 홍보될 예정이며, 각종 오프라인 홍보 행사를 통해 일반인에게 전시 및 홍보자료로 널리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토종닭협회 김연수 회장은 “양계사진 공모전을 통해 양계산업에 대해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2014. 10. 17]